

# AI 시대 업무 자동화와 협업 구조 변화의 장기적 흐름과 전략적 해석

인공지능(AI) 시대에 직면한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존 전략 역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질문을 잘하는 능력과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중요했으며, 2024년에는 AI 도구 활용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했습니다. 2025년에는 바이브 코딩 능력이 요구되었고, 2026년부터는 자신을 위해 다수의 에이전트를 운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와의 협업, 그리고 AI를 통해 자신의 업무를 위임하고 확장하는 능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등장으로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복잡한 업무까지 AI가 수행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AI 활용 격차가 조직 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 AI 활용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AI와의 협업 방식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능력, 즉 '감흥력'—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끄는 힘—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AI는 도구로서 효율적인 정답을 제공하지만, 사람의 감정과 신체적 경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적 숙련뿐 아니라 인간다움, 즉 감정과 신체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AI 대체 가능성은 크게 다릅니다. 정답이 명확하고 혼자 수행 가능한 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해당하는 직무 종사자는 자기 업무의 본질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 정답이 없고 창의적이며 타인과 협업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AI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인간의 역할은 문제 제기, 감정적 소통, 그리고 협업 조율에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처럼 정석에 기반하면서도 사람 간 신뢰와 위로가 중요한 직업군에서는 AI가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인간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AI 도입 시 직원들의 심리적 저항을 해소하는 'AI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게 하고, AI 활용에 따른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AI를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보안 문제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기

업들은 교육과 규칙 마련을 통해 AI 활용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 활용 능력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개인의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전반을 재구성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일은 기존의 '일' 개념과 달라지며, 새로운 형태의 협업과 창의적 활동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 모두 AI와 공존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AI 시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전문가는 AI 발전과 활용에 대해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전략과 장기적 흐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	핵심 관점	키워드	실전 전략
Andrej Karpathy	실전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AI를 도구로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도구 활용, 생산성, 에이전트 운용	개인은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개발·운용하여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업은 직원 교육과 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Yann LeCun	딥러닝 연구 중심으로 AI와 인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협업, 창의성, 문제 제기	AI가 정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동안 인간은 창의적 문제 제기와 협업에 집중하며,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Geoffrey Hinton	AI 구조와 위험성에 주목하며, 재귀적 자기 개선과 AI 통제 문제를 경계한다.	재귀적 자기 개선, 위험 관리, AI 통제	AI 발전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윤리적·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장기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연구에 집중한다.

이 세 전문가의 관점은 AI 활용에 있어 단기적 생산성 향상, 인간과 AI의 협업 강화, 그리고 장기적 위험 관리라는 서로 다른 축을 제시합니다. Karpathy는 실용적 도구 활용에 집중하며, LeCun은 인간의 창의성

과 협업을 통한 AI와의 공존을 강조합니다. 반면 Hinton은 AI의 자가 발전 가능성과 통제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합니다. 실제 적용 전략은 이 세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단기적 효율성 추구하고 장기적 안전성 확보, 그리고 인간 고유의 역할 강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전략은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AI 활용 능력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흐름은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발전시키고, AI의 자가 개선 능력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리스크는 AI를 단순 경쟁자로 인식하여 직원들의 저항을 유발하거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AI 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와 조직 내 위치를 냉철하게 점검하여 AI와 협업할 부분과 인간 고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AI 활용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줄이기 위한 소통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단순한 정보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변화는 단순히 기술 발전이나 업무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AI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협업 방식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나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위협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역할을 창출하는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료'로 받아들이고, AI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AI의 자가 개선 능력과 통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윤리적 논의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 모두 AI 활용 능력을 빠르게 키우면서도, 인간 고유의 감흥력과 협업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투자 판단은 개인의 책임이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 2026 Aquila Insight. All rights reserved.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